



우유수급과 낙농인의 자세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김 남 용

1. 우유의 잉여는 낙농가의 피해

우리나라에는 현재 우유가 남고 있다. 물론 수입되고 있는 유제품을 전면 중지한다면 우유는 남지 않고 모자라게 된다. 우리 낙농가들은 유제품을 전면 중지하여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가지 여건에 의하여 전면 중지는 어려운 것이며 또 행정당국간에도 이해가 상반되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유제품의 일부를 수입 중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유가 남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것인가? 많은 낙농가들은 그 피해는 유업체가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피해는 우리 낙농가들이 더 많이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유의 잉여는 곧 낙농가들의 수지(収支)와 직결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우유의 수급과 낙농인의 자세의 변천

현재의 낙농가들은 우유가 남아돈다고 하여

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당국에서 또는 유업체에서 전부 해결해 줄 것이고 또 낙농가를 위하여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몇년간 계속하여 우유가 부족하였고 우유가 남아도 극히 일시적이었으므로 우유잉여로 오는 심각성을 낙농가들은 거의 인식을 못하였었다.

우리나라의 낙농가가 불과 2백여호에 이르렀던 시기부터 낙농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젖소도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와 그 이전에는 우유생산이 많지 않았으면서도 우유가 남아돌았다. 물론 구호분유가 무상으로 대량 수입되었고 시중에는 구호분유가 범람 유통되고 양유가 범람하고 또 일부 목장에서는 우유를 솥에 끓여 병에 담아 팔고 있기도 한 때였으므로 우유 유통과정이 극히 혼란한 이유로 인하여 우유가 잉여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유가 남았다. 서울 주위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196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재발족)이 유일한 우유처리장이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는

서울 주위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전부 판매치 못하여 어떤 때는 3일에 1일, 심지어는 격일로 우유를 자가소비케하는 그런때도 있었다. 직원은 물론이고 낙농가들도 우유를 등에 짊어지고 서울역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우유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유가공시설이 없었으므로 시유가 판매되지 않으면 우유를 받을 수가 없었다. 즉 우유의 잉여는 곧 낙농가의 납유금지로 직결되었다.

1965년부터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유가공시설이 하나 둘 설치되고 우유소비도 신장되어 어느 정도의 잉여는 가공하여 저장할 수가 있었으나 외국산 분유의 범람으로 국내산 우유의 소비는 어렵게 되어 가공하여 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았다. 즉 아기용 분유는 일본제와 화란제, 그리고 미국제들이 시장을 점유하였고 또 소분업자라고 하여 전지분유를 수입하거나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구호분유로 1kg 또는 500g들이관에 소포장하여 아기용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생겼다. 시장에는 구호분유, 수입한 분유, PX에서 흘러 나온 유제품 등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런 우유들이 싼값에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국내산 우유는 발붙일 곳을 잃고 있었다.

분유 수입업자와 분유 소분업자는 분유를 계속 수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낙농가들은 분유가 수입되고 있는 한 우유의 잉여는 필연적이므로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건의서, 진정서, 고발 등 서로 엉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월 3회 지불되는 유대일에는 건의서와 진정서에 날인하는 날이 되었다. 우유 값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또 남아도는 우유는 납유치 못하고 자가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낙농가들은 굳은 결의로 건의서와 진정서에 날인하였으며 관계 당국에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시일은 걸렸으나 낙농가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받아들여져 소분업은 문을 닫았고 무상으로 들어

오던 구호분유까지 금지되고 환원우유의 상륙도 저지할 수가 있었다. 무상으로 도입되던 구호분유의 도입금지 조치는 당시 관계당국의 과감한 조치였다. 당시만하여도 많은 고아원에는 굶주린 아동들이 있었으며 구호를 받아야 할 노약자들의 딱한 사정도 있었지만 국내 산업보호육성이란 측면에서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낙농가들의 일치단결된 힘의 결과였던 것이다. 현재의 낙농업도 그때 그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소비는 급격히 신장되고 유가공장들이 도처에 설치되었다. 낙농가들이 우유를 가지고 유가공장으로 가서 납유하던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목장 또는 목장 인근에 유업체 집유차들이 와서 우유를 가져가고 낙농가들이 부담하던 집유비도 유업체에서 부담토록 되었으며 우유는 계속 부족하여 낙농가들은 큰소리를 하면서 우유를 납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낙농가들은 우유수급에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우유소비가 우유생산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가들이 가만히 앉아서 큰소리를 하며 수급에는 아랑곳 없이 납유하던 그런 시기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다른 상품과같이 내가 생산한 것은 내가 판매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오고 있다.

3. 우유소비촉진

우유가 남는다는 것은 낙농가들에게 적신호다. 현재는 우유가 남아도 유가공업체에서수유하여 가공 저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정기간 후면 우유가 부족 할 것이라는 전제가 따르고 있으므로 부족시를 대비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참아가며 가공하여 저장하고 있지만 잉여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였을 때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자사가 가공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량만 수유하는 것이지 계속 재고가 누적되는데 왜 전량 수유하겠는가 재고가 누적되는데 계속 수유한다면 그 회사는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낙농가들이 초창기와 같이 우유수급에 신경을 쏟아야 할 때다. 자기가 생산한 우유는 자기가 판매한다는 정신으로 우유소비에도 신경을 써야만 낙농업은 계속 신장할 수가 있게 된다. 낙농선진국에서는 우유대의 일부를 우유홍보비로 활용하고 있다. 즉 자조금음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우유생산량 kg당 1원씩 공제한다면 연간 10억원이 된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우유홍보사업을 정부와 협조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유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는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홍보비는 우유소비를 유도하는 데도 크게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주로 자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데 치중된 홍보,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좀 더 많이 팔기 위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

우유가 소비되지 않으면 그만큼 낙농가들에게 손실이 온다. 현재도 신규낙농가의 우유는 각 유업체에서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낙농가들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우선 자기 주위부터 홍보의 손을 뻗쳐 점차 확대하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여야만 우리가 생산한 우유가 잉여되는 일 없이 낙농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4. 우유생산량의 조정

우유소비가 한계점에 이르면 낙농선진국들은 대부분 우유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다. 즉 우유생산량이 소비량을 계속 웃돌아 우유의 재고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우유생산량을 조정, 우유의 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젖소도 많지 않고 또 우유소비도 전년대비 10~20% 이

상씩 신장되고 있었으므로 우유생산량을 조정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우유생산량을 우유소비가 계속 따를 수가 없을 때는 우유생산량을 조정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우유가 잉여되면 소비확대 그리고 수출을 생각할 수 있다. 소비확대는 위에서도 언급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으며 요는 우유 수출문제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우유가 잉여되고 있어 자국산 우유 재고 처분에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우유가 체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우유를 선진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기타 국가에 수출도 낙농선진국과의 가격경쟁에 뒤지므로 수출은 전연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유소비 확대도 한계에 이르면 잉여되는 우유에 대한 대책은 생산량 조정일 것이므로, 언젠가는 우유생산량을 제한한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낙농가의 동참자세

우유체화 해소를 위하여 많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우유체화 해소를 위하여 낙농가들의 단합된 힘, 단합된 참여 등이 요구될 것이다. 여기에 낙농가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여야만 우유체화를 해소시켜 낙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약속되는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될 것이라는, 나만은 참여치 않고 홀로 이로움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송아지에 모유먹이기 운동, 저능력우 도태, 우유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훈어지면 다 망한다. 방축도 모래구멍이 무너뜨린다. “나 하나”를 과소 평가하지 말자! 앞으로 닥칠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 낙농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만 뚫고 나갈 수 있다.